

표준코드는 총 12자리로 국가코드(2자리), 기본코드(9자리), 검사코드(1자리)로 이뤄진다. 그리고 기본코드는 유가증권이 주식인지 채권인지 아니면 기타 금융상품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식의 경우 기본코드(9자리)는 <sup>①</sup>속성코드(1자리), <sup>②</sup>발행체고유코드(5자리), <sup>③</sup>종목구분코드(3자리)로 나뉜다.

※ 펀드 등 코드는 주식 코드와 완전히 다르다.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목코드를 다시 살펴보면, 처음의 2자리인 'KR'은 국가코드를 말한다. 그리고 <sup>①</sup>기본코드로 9자리가 나타나는데 첫 숫자인 '7'은 <sup>②</sup>증권을 말한다. 이어지는 '00593'은 <sup>③</sup>증권 발행회사가 거래소에 코드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부여한 번호다. <뒤의 세 자리는 보통주, 전환주, 신주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보통주(0)이고 전환이 되지 않으며(0), <sup>④</sup>구주(0)임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검사코드(3)가 주어진 것이다.

↑ 보통주일 때, '종목구분코드'가 '보통주', '전환주', '신주'로 나뉜다.  
원주일 때, '종목구분코드'가 '원주', '발행순서코드(2자리)'로 나뉜다.

그러면 삼성전자 보통주의 공식 표준코드인 'KR70059300003'가 일반적으로 불리는 '005930'으로 변형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한국거래소의 단축코드 부여 방식에 따르면 주권의 경우 7자리가 기본이다. 단축속성코드(1자리), 발행체고유코드(5자리), 종목구분코드(1자리)로 이뤄진다. 주권의 경우 알파벳을 써 'A'를 표시하나 이 역시 생략돼 한 자리수가 빠지고 원래 3자리인 종목구분코드가 1자리로 단축되며 결국 6자리 숫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기본코드 첫 자리  
↓

↘

순 번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종류	코 드
1	국 채	1
2	지방채	2
3	특수채(채권의 속성을 지닌 수익증권 포함)	3
4	선물 및 옵션	4
5	수익증권	5
6	사채권(채권의 속성을 지닌 수익증권, 특수채 중 주식관련사채, ELS, DLS 포함)	6
7	주 권(ETF 포함)	7
8	유가증권예탁증서	8
9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ELW 포함)	A
10	외국채권	B
11	스트립(Strips)	C
12	지 표	D
13	양도성예금증서	E
14	어 음(전자단기사채등 포함)	F
15	사용자영역	9, X, Y, Z
16	예 비	0, 알파벳